

“그날의 합성을 되새기다”

익산시, 항일독립운동기념관서 4.4만세운동 104주년 기념식 열려

익산에서 104년 전 울려 퍼진 4.4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시는 4일 익산4.4만세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항일독립운동기념관에서 4.4 만세운동 10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정현을 시장과 최종오 시의회 의장, 이화동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전춘식 익산항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행사를 주관한 전영철 4.4만세운동기념사업회장의 대회사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낭독 순으로 진행됐으며 문승초 순국열사 후손대표의 유족인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익산 4.4만세운동은 1919년 3.1운동의 영향을 받아 4월 4일 남부시장에서 오산면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도 도남학교 문용기 열사가 주도한 가운데 1천여 명의 군중이 만세를 부르며 일본에 항거한 날이다.

시는 이를 기리기 위해 지난해 3월



익산에서 104년 전 울려 퍼진 4.4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옛 대교농장 자리에 총사업비 12억6천만원(특별교부세 2억원, 시비 10억6천만원)을 투입해 연면적 306㎡, 지상 1층 규모로 항일독립운동기념관을 조성했다.

기념관은 항일운동관, 일제강점기 수탈관, 4.4만세운동관 등 총 3개관으로 이뤄졌으며 항일 의병 부장부터 익산 4.4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올해는 아외 태극기 포토존 설치, 문용기 열사 타분체첩, 문화재 불룩제작 놀이 등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을 추가로 조성돼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정현을 시장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가 경제분야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경제분야 핵심사업 성공 총력

군산시, 국가예산 확보 위해 신영대 국회의원 면담

군산시가 경제분야 핵심사업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을 면담하고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조선 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사업의 추가 예산 건의 및 현재 공모 진행 중인 2023년 동계 상권 발전소 지원사업,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공모 선정 및 국가 예산 반영을 위해 협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 제정 관련 공공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 조항 신설,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 등에 대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공조체계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군산시의 정치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주요 현안 사업들의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평생학습 메카 익산, 디지털 교육도시 ‘도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국비 6900만원 확보

평생학습 메카 익산시가 올해 디지털 문해교육을 새롭게 도입하며 디지털 교육도시로 도약한다.

4일 시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6천9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시는 익산행복학교와 무궁화야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기초문해교육과 함께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를 거점으로 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인 3호로 익산 디지털 문해배움터’를 신규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양성과정, 스마트 폰 활용 및 키오스크 교육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초기에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한글과 기초교육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점차 초등·중학 학력인정과정을 왕초보

영어과정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소외 계층인 중·고령 시민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해 디지털 문해교육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활용 교육이 필요한 시민은 평생학습관으로 문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평생학습관·문해교육센터 전화(☎569-582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지난해 6월 21일부터 지난 3월 13일까지 생애최초주택을 취득한 시민들에게 취득세가 감면된다.

군산시는 지난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법률이 소급적용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은 2022년 12월 31일 감면이 종료된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시민들의 주된 관심 사항인 생애최초주택 취득의 감면규정을 완화하며 정부 정책 발표일인 22년 6월 21일로 소급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의 경우 종전에는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수도권 4억 이하,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3억 이하의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도록 한정하던 것을, 소득기준을 없애고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없이 12억 이하의 주택

을 취득하는 경우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최대 공제액을 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주택 취득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의 효과를 보게 된다.

다만, 취득자가 만19세 미만이거나 상속·상속·증여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로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김성희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 납세자가 환급대상임에도 개정사실을 알지 못하여 환급신청을 못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납세자 본인이 추가 감면 대상자이거나 신규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면 감면신청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살고 싶은 군산 만들기... ‘2023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 개최

군산시가 나에게 100억원이 있다면 살고 싶은 군산 만들기 라는 주제로 인구위기·지역소멸을 극복을 위한 2023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6일간 접수하며, 생활인구를 포함하여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 기간동안 양육, 교육, 청년일자리, 정주여건 등 생애 전

주기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이메일(jwon128@korea.kr) 또는 우편(군산시 시청로 17, 5층 기획예산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사전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결정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함께 최우수상 100만원(1명), 우수상 5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5

명)의 시상금이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살고 싶은 군산만들기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체감의 열린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시청 기획예산과(☎564-2306)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2023 새만금마라톤대회 교통 통제 시민협조 요청

군산시가 오는 9일 2023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교통통제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에 실시되는 2023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로 인해 군산지역 일부구간이 교통통제된다.

통제되는 구간은 총 5구간이며 1구간 : 월명운동장 사거리 ~ 사정삼거리(06:30 ~ 13:00), 2구간 : 사정삼거리 ~ 구보건소사거리(06:30 ~ 10:00), 3구간 : 진포초등학교 사거리 ~ 금강해수랜드 앞 교차로(07:30 ~ 10:00), 4구간 : 금강해수랜드 앞 교차로 ~ 나포교(반환지점)(07:30 ~ 12:30), 5구간 : 연안사거리 ~ 동초등학교사거리 ~ 사정삼거리(08:30 ~ 13:00)이다.

이번 대회기간 동안 교통통제는 주차장 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접수

익산시가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다.

임산부에는 건강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가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부이다. 임신부 1명당 연 48만원 상당의 금액이 지원되며 이 가운데 9만6천원은 자부담이다. 1회 주문 한도액은 최소 3만원 이상 최대 10만원 이하이지만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초과하여 구매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에 한하며 한우·유정란·돼지고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으로 공급한다.

온라인은 에코이플에서, 오프라인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